



# 대구·제주 '당일치기' 원정 경기 가능해진다

### 올해 일정표 '배려'... 지리적 가까운 팀 배정 6월까지 제주 홈 경기 오후 4시 이전 키오프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시즌 초반 '당일치기' 대구·제주 원정길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를 최대한 예방해 보려는 조치다.

2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내달 5월 8일 개막을 앞둔 K리그1과 K리그2(2부 리그)의 2020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지각 개막하는 올 시즌 K리그 일정표에서는 예년에는 없었던 두 가지 '배려'가 눈에 띈다.

연고지가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K리그의 대구FC와 5월 원정 경기를 치르는 팀은 포항 스틸러스(16일)와 상주 상무(29일)다.

원정팀이 대구에서 숙박하지 않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지리적으로 가까운 팀들을 배정한 결과다.

대구가 시즌 첫 경기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9일)로 치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초 대구가 시즌 초반 원정 경기만 치르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초반 라운드를 특정 팀만 원정으로 치르는 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일부 구단들이 문제를 제기해 이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2에서는 22개 팀 중 유일한 '섬 구단'인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 대해 배려가 이뤄졌다.

6월까지 제주 홈에서 열리는 경기 는 모두 오후 4시 이전에 키오프한다. 원정팀이 제주와 경기를 마치면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K리그1 공식 개막전은 이미 예고된 대로 내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전북 현대와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 수원 삼성의 맞대결로 확정됐다.

지난 시즌 전북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인 끝에 아쉬운 준우승에 그친 울산 현대는 9일 오후 2시 상주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국내 무대에 11년 만에 복귀한 이청용이 울산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첫 경기여서 팬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라이벌인 수원과 FC서울의 첫

'슈퍼매치'는 7월 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과 울산의 첫 '동해안 Derby'는 6월 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다.

K리그 팬들과 '불타는 금요일'을 함께할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올 시즌에도 계속된다. 전북과 수원의 공식 개막전을 포함해 각 팀당 1회씩 총 12번의 금요일 야간경기가 개최된다.

K리그2 시즌 첫 경기 대진은 제주와 서울이랜드의 대결로 짜였다. 9일 오후 1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두 팀 모두 올 시즌을 앞두고 사령탑을 교체했다. '승격 전문가' 남기일 제주 감독과 지난해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를 쓴 정정용 서울이랜드 감독이 치열한 지역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공 던질때 진지하게” 3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야구장에서 두산베어스의 페르난데스가 투구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숏 연습 하는 지동원. 연합뉴스

## '긴 재활' 끝낸 지동원 마인츠 데뷔 노린다

이적 후 1년간 공식경기 못해 지난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로 이적했으나 1년 가까이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지동원(30)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리그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지동원은 29일(현지시간)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곧 다시 시작하고, 5월엔 리그를 재개하면 좋겠다"면서 "모두가 다시 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2018-2019시즌을 마치고 지난해 5월 마인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지동원은 프리시즌 연습경기에만 4차례 출전했을 뿐

2019-2020시즌 공식 경기에는 한 번도 나서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연습경기 중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긴 재활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리그 경기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출전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달 중순부터는 경기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동원의 마인츠 데뷔전은 더 멀어졌다.

그가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한 건 이적 전인 지난해 5월 18일 볼프스부르크와의 2018-2019시즌 최종전 이후 거의 1년이 지났다.

지동원은 "경기에 나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 KLPGA 챔피언십 해외파·국내파 대결장

### 박성현·김세영·김효주 출전 최혜진 등 국내 선수 총출동

오는 5월 14일 개막하게 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KLPGA 챔피언십이 한국 여자골프 해외파와 국내파 간판급 선수들 대결의 장이 됐다.

박성현(27·사진), 김세영(27), 김효주(25), 이정은(24) 등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 신청을 마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동안 이 대회 출전을 저울질하던 세계랭킹 3위 박성현은 경기력을 세밀히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한편 오랫동안 팬들에게 경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출전을 결정했다.

이번 시즌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회에 나서지 않았던 박성현은 KLPGA 챔피언십이 올해 처음 치르는 공식 대회다.

박성현이 국내 대회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0월 하이틴진로 챔피언십 이후 6개월 만이다.

김효주 역시 올해 첫 출전이다.

김효주 역시 출전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너무 경기를 오랫동안 뛰지 않아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팬과 스포서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출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일찌감치 출전 의사를 밝힌 김세영과 이정은도 예정대로 출전을 확정했다.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투어가 주된 무대인 이보미(32)와 안선주(33), 배선우(26)도 출전한다.

5월이면 LPGA투어와 JLPGA투어가 한창일 때라 이렇게 많은 정상급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화려한 라인업이 성사된 셈이다.

작년 상금왕과 대상, 다승왕을 모두 휩쓴 최혜진(21)을 비롯해 장하나(28), 이다연(23), 임희정(20), 조아연(20) 등 국내파 스타 군단은 한명도 빠짐없이 출전해 해외파와 뜨거운 우승 경쟁을 펼친다.

올해 처음 열리는 KLPGA투어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에는 KLPGA투어 시드권자 92명 전원이 출전을 신청했다.



## 유럽프로축구 역대 최고 챔피언은?

### 레알마드리드 1위 차지

스페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영국 언론으로부터 '유럽프로축구 역대 최고의 챔피언'으로 뽑혔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자체적인 방식으로 대회 성적에 점수를 부여해 유럽 프로축구팀의 통산 순위를 매긴 결과 레알 마드리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BBC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이 시작된 1955년 이래 65년 동안 이어진 유럽 클럽 축구대항전 성적에 차등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산출했다.

우선 최상위 대회인 챔피언스리그와 전신인 유러피언컵의 경우 우승 팀에 12점, 준우승팀에 6점, 4강 팀에 3점을 줬다.

UEFA 유로파리그(전신 UEFA 컵 포함), 컵 위너스컵, 인터-시티 페어스컵의 경우에는 우승 8점, 준우승 4점, 4강 2점을 부여했다.

UEFA 슈퍼컵 우승팀에도 1점을 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가장 많은 총 243점을 받았다.

2위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맞수 바르셀로나(186점)를 크게 앞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유러피언컵을 포함해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13회)이다. 유러피언컵이 출범하자마자 5시즌 연속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6시즌 동안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UEFA컵에서도 두 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UEFA 슈퍼컵도 4번이나 제패했다.

1. 2위를 스페인 클럽이 차지한 가운데 3위에는 독일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146점)이 올랐다.

이탈리아의 AC 밀란(143점)이 간발의 차로 뒤를 이었다.

리버풀(138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5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 !!



### 제주에너지공사

####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 신청접수 개시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 10년

#### 8개 참여기업 "하자보증기간" 비교

제주솔라에너지	나눔에너지	제원솔라	대은	보타리 에너지	상명 엔지니어링	세경	세경이앤씨
10년	8년	6년	5년	5년	5년	5년	5년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